

그리스도인 28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자백한다.

Christian 28. Christians confess when they commit sin.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에 대한 이유와 변명을 찾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든지,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든지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 **죄를 지었을 때, 최고의 방법은 아주 빨리, 정직하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요일 1:9)

그리스도인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구절에서의 용서는 죄인으로서의 용서받는 것을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써 용서받는 것을 말한다. 죄인으로서 용서받지 못한다면 지옥에 들어가겠지만 아들로써 용서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틀어진 상태로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 구원이 취소되거나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기에 죄를 내려놓지 않은 자신의 아들과는 즐겁게 교제하실 수 없게 된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²또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니라.(요일 2:1-2)

그리스도인의 죄가 하늘 아버지와 교제를 막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에 대해 말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우리의 변호자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변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도 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윗의 사례

다윗은 시(詩)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충직한 신하 우리야와 그의 동료들을 죽였다. 그 이후로, 예언자 나단으로부터 그의 죄를 지적받을 때까지, 또 그가 자기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기까지 그가 참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했는지는 의문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남자였기 때문에 절기 때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그것이 희생이든, 시든, 찬양이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가 죄 가운데서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제대로 그와 교제하실 수 없으셨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죄들을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이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보내셨고, 그를 통해 다윗이 지은 죄를 드러내셨다. 그의 죄들이 지적될 때 다윗은 정직하게 자기의 죄들을 시인했다(삼하 12:13). 그는 변명하지 않고 주께 죄 지은 사실에 대해 자백했다.

잠언 28장 13절에서는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고 했다. 다윗이 그 말씀처럼 주님께 죄들을 자백했을 때, 주님은 그의 죄들을 치우셨고 그가 그의 죄들로 인해 죽지 않게 하셨다.

사울의 사례

그러나 동시대에 살았던 사울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울은 자기의 죄들을 지적받았을 때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삼상 13:12). 제사장 외에는 희생을 드릴 수 없게 하신 율법을 어겨놓고 사무엘이 찾아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느냐고 지적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을** 탓했다. 심지어 사무엘이 늦게 온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하며, 사무엘을 탓하기까지 했다.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해놓고 죄를 지적받을 때, 마치 자기가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한 사람처럼 말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삼상 15:13).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의 잘못을 분명하게 들추시자 그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변명했다(삼상 15:15).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 후회하셨다(삼상 15:11).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버려(삼상 15:26)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죄들을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제의 차원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또 자신의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 그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더 사용하지도 않으신다. 물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회개할 줄 모르면서 죄로부터 떠나려 하지 않는다면 귀한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민감함이 있다. 죄를 가볍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다윗이 정직하기는 했지만 그가 범한 죄들로 인해 징계 당했다. 이것을 보면, 죄가 너무도 큰 상처를 만든다는 점을 알게 된다. 부정함 가운데서 밧세바가 낳았던 아들은 죽었다(삼하 12:14). 또 다윗의 집에서는 자녀들 사이에서 음란한 일과 칼부림, 배반이 있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주님의 원수들인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민감하게 굴며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죄를 지적받을 때는 여러 이유와 변명들을 들이대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하기 보다는 정직하게 자기 죄들을 자백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자백하며 산다.

※ 사용된 성경 텍스트는 KJV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근본역이다.